NAVER

카페홈 가입카페 새글 내소식 채팅 박재형

전체글보기 【알립니다】 【Drawing】-煥 【Cartoon】- 煥 【Fiction】 - 煥 【完 - 끝났어요!】

카페정보 나의활동

매니저 S 홍새벽
since 2006.05.29.
카페소개

가지1단계
9,420 초대하기

즐겨찾는 멤버 814명
게시판 구독수 1,512회
우리카페앱 수 405회

주제 문학/창작 > 소설/인터넷소설

카페 글쓰기

카페 채팅

검색

즐겨찾는 게시판

전체글보기 89,694
카페태그보기
베스트게시글

【알립니다】
【알립니다】- 小
【경고리스트】
【의견&신고】
【등업게시판】

【EVENT】
【2019 활동이벤트】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초자연적 또띠아】
【다회님만】
【홍보관】
홍보관 허가요청

:Community:

【가입인사】
【출석체크】
【릴레이 소설】
【끝말잇기】
【Behind Story】
【잡담코너】
【비평&추천】

【Fiction】 - 煥 >

[정엘 장편] 상처받은 엘의 유희 2화

ko 운디네 1:1 채팅
2020.06.17. 12:09 조회 639

댓글 6 URL 복사

시험 끝나고 바로 왔습니다~^^
너무 졸리네요~
바로 가시죠~

===<트로웰 시점>
아름다운 보석꽃들이 있고 정령들이 뛰어 노는 에바스에덴.
하지만 그곳은 평소와는 달리 어두운 분위기만이 감돌고 있다.
그들에게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이였던 엘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자신들 손에..

자신들이 너무 한심했다
누구도 아닌 엘을 상처입히고 결국엔 소멸시켰다
가족이라던 자신들이

엘을 죽임으로써 저주는 풀렸지만 그로인한 죄책감은 하늘을 찔렀다

<슈우욱>
"어서와..엘퀴엔,페르데스. 엘은..찾았어?"
"아니..아레히스는 알고 있지만 알려주지를 않아..내가 상관인데도..."

그들은 소멸한 엘을 찾고 있었다.
어딘가에 다시 태어났을거라고 믿었다..
그 증거로 다음대의 물의 정령왕이 태어나지 않았다
분명 엘이 정령왕의 힘을 모두 가지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일것이다.

"아크아돈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엘이 힘을 모두가지고 태어났으면 우리가 기운을 느낄수 있을꺼야.."
"혹시..다른차원에 태어난거 아닐까요?"
"다른차원..."

가능성은 없지않다. 다른차원에 있으면 우리가 알아차렸을테니까

하지만 어디에?
많고많은 차원중 대체 어디에?

그래도..

찾을꺼야

반드시 널 찾을꺼야..엘
몇년이 걸리든 몇십년이 걸리든..네가 죽고 다시 태어났어도 반드시..널 찾아갈께..

그리고..사과할꺼야..너에게
네가 받아주지 않더라도 빌아줄때까지 계속해서 사과할꺼야..그러니 기다려줘

:With 煥:

【버뮤다 삼각지대】 - 煥
【전력60분】 - 煥
【Cartoon】- 煥
【Drawing】-煥
【Quiz¿】 - 煥
【Fiction】 - 煥 N
【Etc】 - 煥
【完 - 끝났어요!】 N

:CREATION:

【Request】
【Cartoon】-Etc
【Drawing】-Etc
【Fiction】-Etc

:Operation:

게시물 리턴
【(구)가입인사】
【폐쇄예정】

:Past:

:지난 이벤트:

【2015 대항전】
【2016 활동이벤트】
【2017 콘테스트】
마니또
순간포착!
스킨&대문

LINK

접속멤버 2명

pjh5338
S 홍새벽

카페 인기 태그 more

최근 3일간 태그가 없습니다.

카페탈퇴하기

Beta 궁금한게 있을 땐
카페 스마트봇

"여기서 이렇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내려가서 대부를 찾아보자"
"..뭐?"
"나도 같은 생각이야"
"하지만, 트로웰. 우린 차원이동을 못해"
"맞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비우면 아크아돈에 재앙이 올껍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본건데..상급신중에 자연을 관장하는 신이 한명 있었지? 그신에게 가서 부탁해보는게 어때?"
"자연의 여신이라면..'네이'말이군"
"과연 들어줄까?"
"그건 잘 모르지만 이젠 방법이 없어..무슨일이 있어도 엘을 찾아야되. 사과할게...너무 많은걸.."

그말에 다른 모두가 고개를 숙인다

그러던중 누군가가 갑자기 자리를 일어선다
바로 엘뤼엔이였다

"엘뤼엔?갑자기 어디가?"
"고개 숙이고 있어봤자 해결되는건 없다. 말을 듣지 않는다면 힘으로라도 말을 듣게 해야지"
"나도 갈께"
"나도 갈께"

페르데스와 크로아첸이 동시에 말한다. 그리고 세명의 신들은 이동언령을 사용해 신계에 도착했다

***<엘뤼엔 시점>

"빨리 가자"

크로아첸의 재촉에 그들은 네이의 궁처로 향한다

그런데 신들의 호수 쪽에서 어느 소리가 들린다

"있지, 이번에 새로 태어나신 상급신 봤어?
"아,봤어봤어. 라세크님 말이지?축복과 은사의 신말이야"
"맞아맞아~.얼마전에 봤는데 성격도 무지 다정하신거 있지~"
"나도 본적 있어. 얼굴도 얼마나 잘생기셨는지~보는 눈이 호강한다니까~"

라세크라..얼마전에 새로 태어났다던 신인가

"여긴가"
"빨리 들어가자"
"재촉하지 않아도 알아서 들어간다,도마뱀"
"글쎄,나 도마뱀 아니라니까!!"
"둘다 싸우지말고 어서 들어가기나 하자. 수행천사 나왔어"

그들은 자신들을 마중나온 네이의 수행천사를 따라갔다
그리고 네이를 만났다

"어서오십시오. 형벌의 신 엘뤼엔,망자의 여신 페르데스, 마신 크로아첸. 세분께서 저의 궁처에는 무슨일로?"
"부탁할게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죠,망자의 여신님"
"실은..아크아돈을 잠시 맡아주실수 있겠습니까?"
"...아크아돈..말인가요?정령왕이 다스리는 곳을 제가 어째서..?"
"정령왕들을 비롯해서 여기있는 저희도 다른 차원을 다녀와야 합니다. 하지만 정령왕은 자리를 비울수 없으니 그 기간동안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건좀 힘들것 같군요"
"..어째서지?"
"저는 제가 다스리는 차원의 일만해도 일이 넘쳐나다 못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와중에 일을 더 떠맡기는 힘들지요.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형벌의 신님?"

물론 잘 알고 있다. 하지만...무슨일이 있어도 엘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 포기할수 없어
나는..엘의 아버지..니깐

내가 직접 내자식으로 삼은 내 딸을..내손으로 죽였다. 나는 반드시 사과해야되. 엘을 상처입힌 벌을 받아야해..

"물론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만이라도 도와줄수는 없나?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엘뤼엔.."

나는 평소에 하지도 않던 부탁을 했다
내 딸을 찾기 위해
찾아서..사과를 하기 위해

옆에있던 페르데스와 크로아첸은 경악했다

그 엘뤼엔이 강제로 시키는게 아니라 부탁을 했으니 말이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겠지..'

페르데스는 생각했다.
그녀또한 엘뤼엔만큼 간절했다.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모두가 사랑하는 그아이를 자기들 손으로 죽였으니..
받아주지 않더라도 만나서 사과하고 싶었다

"흠…"

자연의 여신이 생각에 잠겼다. 지금 일로도 충분히 많아서 힘든데 거기에 아크아돈의 일까지 더한다면 몇배는 힘들어 질것이다

하지만 저들이 왜 그러는지 알고 있다. 그녀또한 자연을 관장하는 여신으로써 '그일'을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부탁까지 하는데 못들어 줄수는 없겠지'

"...알겠습니다. 그부탁,들어드리도록 하죠. 하지만 너무 오래는 안됩니다."
"...얼마나 가능하지?"
"..대략..20년정도 겠네요..더이상은 저로써도 무리입니다"

허락을 받은 그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담겼다

20년..긴시간은 아니지만 잘만 활용한다면 찾을수도 있을지 모른다.

"...고맙다.."

엘뤼엔의 그 말을 들은 자연의 여신이 눈을 약간 크게 떴다가 이내 미소 짓고는 말한다

"..별말씀을"

세명의 신들은 자연의 여신의 궁처를 나와 다시 에바스 에덴으로 이동하려고 했다

그런데..

"어?너는 전대 엘퀴네스?"

??누구지?

그때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나온다
머리는 은색과 붉은색, 투톤의 그라데이션이고 눈또한 붉은색인 남자였다.

'저건...전대 이프리트군. 귀찮은 놈을 다시 만나다니'

"왜 부른거냐"
"와..여전히 왕싸가지네"
"죽고 싶나보군"
"사양할께~난 신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프리트때처럼 단명하고 싶지는 않거든~"
"그렇다면 어서 꺼져라"
"칫!지구로 가기 전에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좀 한거가지고..우아아악!!!망할놈아 여기서 던지면 어떻게!!"

엘뤼엔이 신력구를 만들어 바로 던지자 라세크가 아슬아슬하게 피하면서 소리쳤다

"난 분명히 경고했다. 한번에 알아듣지 않은 니 잘못이다"
"저저저!!저거 싸가지 만땅에 인정이라곤 개미만큼도 없는놈!!"
"신력구를 한번 더 경험해보고 싶은가 보군"
"아니!!됐어!! 절대사양이야"

그렇게 말하곤 획 뒤로 돌아 가버리는 라세크

"그런데..저녀석 무슨 신이야?"
"글쎄..태어난지 얼마 안됬다고 했으니 아까 여신들이 말한 라세크 라는 신 아닐까?"
"저녀석이 축복과 은사의 신이라니. 곧있으면 축복이 다 엉뚱한 놈들에게나 가겠군"
"...아무튼 빨리 정령계로 가자"

<이동>

***
"왔어?"
"어떻게 됬어?"

"허락했다."

그말에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금세 밝아진다

"하지만.."
"하지만?"
"제한 기간이 있다"
"..얼마나?"
"..20년이다"
"...20년?"
"그사이에 찾을수 있을까?차원은 많은데말이야"
"그래서 분담해서 찾아야 겠다. 일단 우리 셋이 담당하는 차원은 제외하지. 수행천사들을 시켜 찾게 하면 되니까."
"그럼 각각 세팀으로 나누자. 차원이동할수 있는 신들이 세명이니까"

그들은 고민끝에
1조는 엘뤼엔,이프리트,트로웰,이고
2조는 크로아첸,아스,시벨
3조는 페르데스,미네이다

그들은 제 1차원부터 순서대로 찾기 시작했고 반년마다 차원을 바꾸기로 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연락해 엘에 대한 단서를 교환하기로 했다.

"그럼 출발하자"

그들은 각자 차원으로 이동했고 동시에 생각했다

'기다려,엘..우리가 반드시 찾아낼께..그리고 사과할께..'

***

한편 지구에서의 엘은 다시 예전처럼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마음을 열었고, 사회생활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정도로 밝아졌다

엘은 어린이집을 다녔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청화야~"
"안녕,유리야"
"오늘도 같이 놀꺼지?"
"물론이지~"
"그럼 내가 사라랑 여울이 불러 올께"
"맨날 있던데로와~"
"알았어~"

엘은 새로 사귄 친구 3명이랑 같이 항상 같이 모여서 놀았다
그들의 우정은 누구보다도 끈끈했다

그런데 그런 엘을 다른 아이가 쳐다보고 있었다.
그아이는 엘과 같은반 여자아이로 어린나이 답지않게 굉장히 사악하고 영악했다.
당연히 질투심도 많았다.그런 그녀가 엘을 질투하고 있었다.
엘은 아직 어렸지만 그녀의 미모는 누구보다 뛰어났고 어두운부분은 있긴하지만 다정했고 사랑스러웠다.

그녀는 속으로 칼을 갈았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자리는 자신이 되어야 한다.

'저건 내가 있어야할 자리야'

그녀는 엘이 발견했던 독살당했던 그 아이를 죽인 박수형의 친딸 박승희였다

'반드시..저자리를 빼앗고 말겠어..'

그때는 아무도 몰랐던 그들의 길고긴 악연의 시작이였다

***
"청화야~안녕?"

승희는 친구들과 놀고 있던 엘에게 다가간후 웃으며 말했다

"어?안녕~넌 이름이 분명...승희였지?"
"맞아~나도 같이 놀아도 될까?"
"나는 상관없는데 너희들은 괜찮아?"
"난 좋아!"

"나두!"
"나두,좋아. 많을수록 좋지~"

친구들은 좋아라 하며 승희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승희는 속으로 웃는다
이제 이자리는 내꺼야

"우리 놀이터가서 놀자. 숨박꼭질 어때?"

승희의 제안에 모두들 동의했고 그들은 모두 놀이터로 나갔다.

가위바위보를 통해 술래는 청화가 되었고 엘이 나머지 친구들이 모두 숨기 위해 뒤를 돌자 모두 놀이터 구석구석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그때문에 다른아이들은 보지 못했다. 승희가 준비한 계획을..

"나 찾는다~"

엘은 다른 친구들을 찾기 시작했다
솔직히 엘의 시력으로는 그자리에서도 찾을수 있었지만 재미를 위해 그냥 직접 찾아다녔다

"음..꽤 오래걸리겠네"

엘이 다니는 곳은 국내에서도 가장 좋은 어린이집으로 투자를 많이 받아 건물 하나가 통채로 어린이집이고 놀이터도 웬만한 공원처럼 정자에다가 작은 호수까지 있었다.

"빨리 찾아야지~"

엘은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다른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꺄아아악!!"

!!!희미했지만 저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저목소린 분명히…유리잖아!?!?!

엘은 서둘러 소리가 들린 쪽으로 달려갔다.
어리지만 달리기가 빠른편에 속했던 엘은 금새 유리가 있었던 곳에 도착할수 있었다.

"유..유리야!!!"

유리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유..유리야. 유리야!!정신좀 차려봐!!"

엘은 유리를 흔들면서 유리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유리..

엘은 주위를 살펴본 후에 서둘러서 유리에게 치유술을 시전 했다

하지만 충격이 컸는지 깨어나지 않았다

그때 또다른 곳에서 연달아서 비명이 들렸다

!!설마…!

엘은 유리를 바닥에 눕히고는 다른 두명이 있는 곳으로 서둘러서 달려갔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곳에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라와 여울이가 있었다

"얘..애들아!!"

엘은 굉장히 놀라 서둘러서 치유술을 사용했고 다행이 상처는 금방 나았다

하지만 두사람도 유리와 마찬가지로 기절한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엘은 그대로 건물안으로 달려가 선생임을 불렀다.

엘의 말을 들은 선생님들은 깜짝놀라 놀이터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쓰러진 아이들을 보고 기겁하면서 서둘러서 구급차를 불렀다

그런데..누구 하나가 없는데?

"...승희.."
"청화야,뭐라고?"
"승희가 없어요..같이 놀았는데 안보여요"
"!!!"

선생님들과 엘은 놀라서 놀이터 이곳 저곳을 뛰어 다녔다

"승희야!!"
"승희야!!어딨어!!"

엘은 자신의 시력을 이용해 승희가 어딨는지 살펴 보았다
그리고 승희를 찾아냈다

승희는 놀이터뒤 작은 언덕 아래에 쓰러져 있었다

엘은 서둘러서 그곳으로 달려갔고 승희는 기절한 상태였다.

"찾았어요!!"

엘은 크게 소리쳐서 선생님들을 불렀다
엘의 목소리를 들은 선생님들은 빠르게 달려왔고 때마침 도착한 구급차가 4명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괜찮..겠죠?"
"괜찮을거야,청화야..걱정하지마.."

'내가 치료했으니 괜찮을꺼야..'

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였다

***
'여긴가?'

나는 친구들이 오늘 아침 의식을 차렸다는 말을 듣고 어린이집이 끝나자 마자 병원으로 갔다

-똑똑-

나는 노크를 하고 병실로 들어갔다

"얘들아..괜찮아?"
"...가..."
"..뭐?"
"가라고!!!"

'쿵'

"얘..들아..왜그래?"
"너가 우리 이렇게 많들었잖아!!"
"무,무슨소리야?나 아니야!"
"거짓말!승희가 그랬어! 너가 자기를 언덕위에서 밀어버렸다고!그리고나서 우리도 뒤에서 공격한거라고!당장 나가!꼴도보기 싫어어!!"

유리의 말에 나는 머리를 한대 맞은거 같은 충격을 느꼈다
승희...그래..너구나..

'네놈이 한짓이렸다..'

나는 분노가 마치 용암처럼 흘러나왔다
하지만 나는 그 분노를 표출할수 없었다

친구들의 모습에...그들의 모습이 겹쳐졌으니까..

'꺼져라,엘퀴네스'
'꺼지십시오'
'너따위가 왜 내 대부야?'
'너처럼 하찮은게 왜 엘리엘의 아들이야?'

그들이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내 머릿속에 그려졌다.

나는 주저앉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아니야..하지만..지금 너희들은 이런말을 해도 모르겠지..
마치.. 그들처럼"

나는 그대로 몸을돌려 병실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보았다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는 승희를…

나는 최대한 빨리 병원 복도를 전력질주했다
너무 괴로워서..미칠거 같았다
이런일..두번다시 겪고 싶지 않았다

나는 병원을 나와 근처 호수공원으로 쉬지도 않고 달려갔다

그리고 아무도없는 한적한 곳으로가 잔디위에 호수를 바라보며 앉았다

그러자 눈가의 눈물이 방울방울 맺혔다

"나는 아닌데..왜..흑...흐윽…."

결국 나는 울고 말았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울고 말았다
더 울고 싶지 않아서 입을 꾹 다물었다.

"흡..흡..히끅"
"너무 울지마. 너잘못 아니야.."

!!누구?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자 나무 위에 앉아 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그는 위쪽은 은발이고 아래로 갈수록 붉어지는 투톤의 그라데이션 머리카락을 가진 남자, 라세크였다

'이 신성한 기운..신인가?'

"..그러시는 분은 누구신데요"

상황이 좋지 않아서인지 저절로 딱딱한 말이 나왔다

"아..이모습은 모르겠구나.."

그는 나무아래로 훌쩍 뛰어내리고는 나에게 걸어와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야..지훈아.."

!!!설마..

"너..태진이야?너가 어떻게..?"
"아,실은 내가 전대 이프리트였거든~"

전대 이프리트? 내가 4000년전 과거로 가서 만났었던 이프리트가..태진이였다고?

"한 1년전에 신이 됐어"

1년전이면 그사건이 있을때구나..
만날수 있었을텐데..아쉽다

"...그런데 울지말라니?너 다 보고 있었어?"
"물론. 너 3살모습일때부터"

결국엔 거의 내가 이모습 할때부터 봤다는거네..무려 1년동안

"근데 왜 바로 아는척 안했어?"
"실은 주신님이 그랬거든. 1년동안은 지켜만 보라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지뭐"

그렇구나..주신님이..왜그랬는지 알겠네
내가 그일이 있고 얼마 안가서 라세크를 만난다면 나는 전적으로 너무 그에게만 의존하게 될것이다.

'주신님은..그런것까지 신경써주셨구나'

"그래서 내일까지 지켜보기로 했는데 너가 울길래 오늘 나타나기로 한거지"

나는 눈가가 뜨거워졌다.
내가 다시 울려고 하자 태진이..아니..라세크는 그저 아무말없이 조심스럽게 나를 안아주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괜찮으니까 울어도되"

'울어도되'
그한마디에 나는 눈물샘이 폭발해버렸다
나는 라세크의 옷깃을 붙잡고 목놓아서 엉엉 울었다. 라세크의 하얀옷이 내 눈물로 인해 축축해져갔다

나는 그렇게 한참을 울고는 집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저녁식사때 부모님한테 말했다

"저기..저희 이사가면 안되요?"
"이사?갑자기..무슨일 있니..?"
"그건...그런게 있어요.."

'그아이들을 볼 자신이..없어요..그때와 너무 같았으니까..'

이런말을 할수 있는것도 우리집이 부자라서 가능한 일이다
이집에 오고나서 얼마 후에 알게된 사실인데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기업 No.3기업의 회장이였다.

두분은 이런 나를 잠시 쳐다보더니 이내 그러자고 대답한다.
나는 두분이 고마웠다. 아무것도 묻지 않아주어서..아직은 내가 직접 말할 자신이 없었으니깐

그리고 1주일후 우리는 디른곳으로 이사갔다.
그곳도 원래 살던곳 처럼 엄청난 부자동네였다.
하지만 나는 이번엔 어린이집은 예전처럼 부자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다른곳처럼 평범한 어린이집으로 가고 싶었다. 물론 내 출신은 말하지 않고

부모님은 이번에도 내말을 들어주셨고 나는 바로 다음날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예전 어린이집에 있었을때처럼 많이 웃지 못했다
웃어도 환한 미소가 아닌 약간 희미한 미소였고 말수가 적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내 본래의 분위기 때문인지 다가오는 아이들은 많았고 나는 그 아이들과 친구를 했다

하지만 필요이상으로 다가가지는 않았다
그아이들과 나 사이엔 언제나 내가 쌓은 벽이 존재했다.
그벽을 넘을수 있는것은 오로지 라세크 뿐이였다.

나는 라세크가 올때마다 그와 수다를 떨며 놀았고 그때만큼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러던 어느날 그가 물었다

"엘, 이 근처에서 축제한다는데 거기 한번 가볼래?"
"축제?그런게 있었어?"
"나도 얼마 전에 봤어. 불꽃축제라던데?"

불꽃축제라..오랜만에 축제라니 재밌겠네?

"좋아!그럼 나 허락 받고 올게"
"갔다와~"

나는 그대로 부모님 방으로 가서 부모님에게 물어보았다

"어머니,아버지, 저 이근처에서 춖제한다는데 그때 거기 갔다와도 되요?"
"축제라면 불꽃축제구나? 거기 가고싶니?"
"네!!"
"하지만 혼자서는 위험한데?"
"혼자아니에요,괜찮아요"
"음..걱정되긴 하지만.. 그러렴 하지만 일띡 들어와야 한다"

"감사합니다~!"

나는 웃으며 부모님 방을나와 내방으로 갔다.

"라세크! 부모님이 허락 해줬어~"
"정말?그럼 내가 축제할때 데리러 올게~"
"응!!"

라세크는 서류처리하러 신계로 돌아갔고 나는 축제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리고 축제날이 왔다

축제날은 주말이라 사람도 많이오고 범위도 거대했다

"사람 진~짜 많다~"
"풉! 그러게,푸흡!"
"왜 웃어?"
"너 진짜 어린애같애,푸하하하!!"
"이익!어떻게 보면 어린애 맞거든!!"

나는 삐진척 볼을 크게 부풀렸다
그걸본 라세크는 더욱 크게 웃었다

"푸하하하하하!!"
"너 자꾸 웃을래!"
"크흐흡..!!,아~미안미안,너무 웃겨서 그만~"

라세크는 그렇게 말하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평소같았으면 짜증내겠지만 어째선지 마냥 나쁘게만은 느껴지지 않는다

'강지훈이였을때 몇번 장난으로 그런적 있어서겠지'

"아무튼 빨리가자!!"

내가 계속해서 재촉하자 라세크는 웃음을 겨우 멈추고 따라왔다.
그리고 우리는 축제장으로 향했다

***
"우와아아~!!여기 진~짜 넓다~"
"푸흡!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어린애라니깐"

라세크가 중얼거렸지만 엘은 먹을거에 정신팔려서 듣지 못했다.

어느새 보니 엘은 양손 한가득 온갖가지 먹을거리를 들고 돌아왔다

"그거 다먹게?"
"응. 문제 있어?"
"아니 그건 아닌데.."

'쟤 원래 저렇게 식탐가였나?'

속으로 생각하며 라세크는 엘이 먹는 것을 바라보았다

'되게 맜았게도 먹네'

"근데,엘. 너 돈은 어디서 나서 그렇게 사왔어?"
"부모님이 주셨어. 마음껏 놀고오라던데?"
"부잣집이라 씀씀이가 남다르네. 그럼 이렇게 나온거 더 놀다 가야지!"
"물론,그래야지~"

나는 재빠르게 음식을 다 먹고나서 라세크의 손을 잡아채고 공연을 하는 곳으로 끌고 갔다

공연후엔 밤에 하는 등축제를 보러가고, 온갖가지 채험들도 했으며,기념품들도 잔뜩 사고, 마지막으로 불꽃축제의 하이라이트이자 클라이막스인 대규모 불꽃놀이까지 보았다

"슝...피유웅!!"

불꽃이 터지자 여러가지 다양한 모양과 색들이 하늘을 도화지 삼아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

"와아아아.."

엘은 감탄하기에 바빴고, 라세크는 그런 그녀를 보며 문득 생각했다.

'귀엽네'

***

불꽃놀이가 끝나고 엘은 집으로 돌와 왔다
라세크는 이미 집앞에서 수행천사한테 끌려갔다
알고 보니 서류를 땡땡이 쳤대나 뭐래나..
아무튼 당분간은 오기 힘들겠단다.

'뭐 그동안은 나 혼자 놀아야지'

엘은 정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집안으로 들어갔다

"다녀왔습니다~"
"잘 놀다 왔니~?"
"네!!엄청 재밌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밝은 내 목소리와 표정을 본 부모님은 얼굴 한가득 미소를 지어주셨다

"앞으로는 여행 자주다녀야 겠네~우리 청아가 이렇게 좋아하는거 보면~"
"진짜요?와아~!"

나는 정말 어린애처럼 좋아서 방방뛰었다.
어린애 맞긴 하지만..

그런 나를 보고 부모님은 웃음을 터트리셨다

'아아,오랜만이다 이런기분. 가족들이랑 행복한 이시간이 좋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곤 부모님 한테 가서 안기고서 말했다

"엄마,아빠 딸이라서 너무 좋아요"
"엄마,아빠도 마찬가지란다, 사랑하는 우리딸"

그말 한마디가 너무 좋았다

'이제 이사람들이..진짜 내 가족이야'
===
공백제외:8013

쓰다보니 장르가 여러개네요
배신물+유희물+로맨스=??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다음편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댓글 **등록순** 최신순 댓글알림

rin
재미있게 잘봤습니다!!
2020.06.17. 14:42 답글쓰기

ko 작성자
와~감사합니다~다음편도 쓰는중에 있으니 빨리 올릴께요~
2020.06.17. 14:43 답글쓰기

헬마스터
와아! 2화 보고 갑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20.06.17. 14:47 답글쓰기

ko 작성자
감사합니다~담편 열심히 쓰고 있으니 빨리 올릴께요~
2020.06.17. 17:53 답글쓰기

에리아
엄청 제 취향이에요~ 흐규..ㅠㅠ
2020.06.22. 20:25 답글쓰기

ko 작성자